

## 취재 안내

즉시 보도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마크 김 대표  
Korean American Institute: Mark Keam  
(202) 505-0300 / [mark.keam@ka.institute](mailto:mark.keam@ka.institute)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센터: 장태한 교수  
Young Oak Kim Center: Edward Chang  
(951) 827-1825 / [edward.chang@ucr.edu](mailto:edward.chang@ucr.edu)

###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와 연구 전문가 팀이 성장하는 미주 한인 공동체의 현황, 경험, 및 관점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1,500명의 미주 한인 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전국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워싱턴... 금주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orean American Institute / KAI\)](#)는 미주  
한인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최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전국적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미주 한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생활 경험, 사회적 요구,  
그리고 현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프로젝트의 명칭은 “[미주 한인 이민 125주년 설문조사: 현황과 미래 방향](#)”이다.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는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는 7월,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1903년부터 이어진 한국인 이민 역사가  
125주년을 맞이한다.

오늘날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명 이상의 한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한인은 한반도 밖에서 가장 큰 디아스포라 집단이며 미국 내 아시아계 하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역동적이고 다양한 한인 집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와 유용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와 학계 전문가들은 전화 및 온라인 접근 방식을 통해  
1,500명의 응답을 확보함으로써 이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미주 한인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를 공동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센터장 장태한교수는 “미주 한인은 미국 내 오랜 역사적 뿌리가 있고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그룹이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저조한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한국과 한국 문화가 대중으로부터 더 큰 인지도를 얻으면서 증가하는 가시성이 보다 대응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주 한인에 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최신 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최대 규모의 미주 한인의 대표 표본을 과잉 추출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는 신뢰성 있는 설문 패널 업체를 통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할당(quota)에 따라 모집된다. 해당 할당은 지역, 성별, 연령대, 학력, 직업, 언어, 세대, 가족 구성, 이주 이력과 같이 인구 통계 특성을 반영한다.

설문 참여자는 18세 이상이고 최소 한 명의 한국인 부모를 둔 경우에만 선정된다. 이 참여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참여는 자발적이며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설문 응답은 이름을 포함한 개인 식별 정보 및 연락정보와 분리하여 처리된다.

엄격한 학술 기준에 따라 연구팀 구성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향후 학회 발표, 학술지 또는 도서 출판, 공적 및 언론 발표 시에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없이 집계된 형태로만 제공된다.

본 설문조사는 약 15~20분 정도 소요되고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있는 핵심 영역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 및 웰빙: 시니어와 청소년 정신건강에 중점을 두고 신체적·정신적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및 불평등을 파악한다.
- 경제적·사회적 이동성: 빈곤율과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을 통한 능력주의 기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이동 경향을 분석한다.
- 정체성 형성, 차별, 인종적 태도 및 시민 참여: 미주 한인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정치적 통합을 어떻게 경험하고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는 경험이 풍부한 한인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했으며, 다양한 미주 한인 사회의 리더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공동 책임 연구자인 [앤지 정\(Angie Chung\)](#) 교수(알바니 대학교)와 [장태한\(Edward Chang\)](#) 교수(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가 주도하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 번역, 방법론을 준비한 팀 내 다른 전문가로는 [캐롤라인 최\(Carolyn Choi\)](#) 교수(프린스턴 대학교), [김민정\(Minjeong Kim\)](#) 교수(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임소정\(Sejung Lim\)](#) 교수(버팔로 대학교), [박자룡\(Jerry Park\)](#) 교수(베일러 대학교)가 있다.

본 설문 도구는 [BSP 리서치](#)에서 관리하며, 해당 기관은 20년 이상의 연구 경험과 미국 내 인구 변화에 대한 문화적 이해 역량을 갖추고 있다. BSP 리서치는 최근 150명 이상의 학술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2024년 공동 다인종 선거 후 조사](#)의 일환으로 4,000명 이상의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는 2년에 걸쳐 약 25만 달러로 책정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 중 6만 달러는 남부 캘리포니아 소재의 [미주 한인 재단\(Korean American Foundation\)](#)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지원했으며, 해당 재단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자선 기금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향후 몇 달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와 연구팀은 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일반 대중과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대표 마크 김은 “최근 들어 일부 미국인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케이팝, 한국 영화·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123년에 이르는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의 인기 문화 콘텐츠 이외에는 미주 한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미주 한인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 및 지식 부족은 성장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가 미국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방해해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미주 한인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I는 2022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비영리 단체로, 미주 한인의 중요성을 실현하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는 미주 한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며,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 있고 실행 가능한 연구를 수행한다.

KAI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KA.Institu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